



2013년 국정감사

한은대구경북본부/대구지방국세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17.(목)~

담당자

박 소 희 비서

[한국은행_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본부]

▶ 대구/경북 경제현황과 과제

- 자본과 기업의 역외 이탈, 청년창업과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 대형마트 지역법인화하면 자본 유출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교육의 도시 대구! 청년실업 문제해소에 한국은행도 힘을 보태라...한국은행 '기술형창업지원자금'을 동대구벤처밸리에 모여드는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대구지방국세청]

▶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심한 세정 필요

- 예비창업자,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지원 요망

☞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및 '대구모바일게임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창업관련 세법 강좌를 의무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

▶ 징수유예 처분 건 수 전국 최고 건당 금액 전국 최저

- 유예처분 많은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영세기업과 서민이 많다는 뜻.

☞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1인당 징수유예금액은 평균 2,000만원, 그러나 대구는 700만원에 불과해. 반면 전체 유예처분 건 수의 32.5%를 차지하는 대구가 받은 혜택은 금액규모로 전체 유예금액의 13.7%에 불과함.

▶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처리 1위, 고액상습 체납법인 수는 가장 낮아 제일 양호

- 고충민원 처리 평균일 수 5.6일로 납세자 편의를 최고로 생각하고, 고액상습체납 법인 수 가장 적어 제일 양호

☞ 주로 영세한 납세자가 애용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일 수가 짧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어...

대구/경북 경제현안과 과제

- 자본과 기업의 역외 이탈, 청년창업지원 강화와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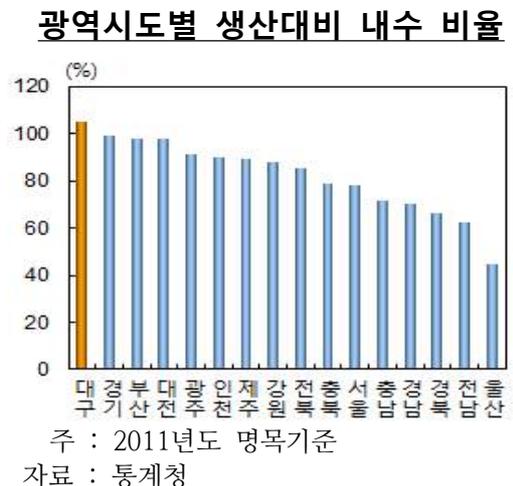
□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대구지역의 지역 총생산(GRDP)은 37.6조원(전국평균의 48.4%)으로 6개 광역시중 4번째 규모이지만 1인당 GRDP는 15.2백만원으로 가장 부진. 무엇보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소비도시의 이미지 변화가 필요해.



- 분배측면 : 지역총소득은 GRDP를 20% 상회
 - 2011년 대구의 지역총소득은 44.8조원으로 GRDP보다 7.2조원 커 GRDP와의 격차가 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중 가장 크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은 18.1백만원으로 광주보다 높은 상황
- 지출측면 : 소비 및 투자 규모도 GRDP보다 높은 수준
 - GRDP 대비 내수 비율은 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구 지역내 생산액보다 훨씬 많은 소비와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2011년 경상북도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81.3조원



- (경북/주요기업의 역외 이전) 전체 인구가 42만명 수준에 불과한 구미는 전국산업단지 생산의 7.7%,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초대형 산업도시임. 창원과 함께 동남권 산업벨트를 대표하던 구미에 조금씩 위기가 찾아왔음. 기업들이 하나 둘 떠나 구미경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임.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지역경제 의존, 2012년 구미산단 총 수출액 344억달러 중 두기업의 비중이 63% 수준 ⇨ 10여년 사이에 큰 공장 9곳 문 닫아 없어진 일자리만 9,000명(전체 구민 산업단지의 10%)

*삼성 휴대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 LG디스플레이 2010년 이후 구미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파주 공장의 58%

삼성전자 베트남법인(SEV) 개요

설립연도	2008년 3월
생산 제품	휴대전화, 청소기
총면적	47만㎡
인원	3만 9500명(한국인 953명)
2013년 생산량	1억 5000만대
2013년 생산현황	스마트폰, 태블릿 --- 98% 기타 ----- 2%
인력구성	여성 직원 80%, 남성 직원 20%, 평균연령 21세

베트남 법인과 구미 사업장 경쟁력 비교

	베트남	구미 사업장
휴대전화 1대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	0.8달러	5달러
휴대전화 1대당 제조가공비(베트남을 1이라고 했을 때)	1	3.7
활용 가능한 고교 졸업생수(고교 졸업생수-대입진학자)	22만 3545명	6만 4588명
세제 비교	법인세 4년간 면제 수입관세 0%, 부가가치세 0%	법인세 22%, 수입관세 0~50% 부가가치세 10%

- (청년 취업률 하락) 대구지역의 주력산업 부재가 소득증가 부진과 지역 청년 역외 유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취업자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8.4%에 그침(여타 광역시도 대구지역과 비슷한 추세).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고령화를 초래하여 신기술 습득 등을 어렵게 하므로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분기 실업률로 보면, 2013년 3분기 실업률은 3.3%로 전년동분기(3.1%)보다 0.2%p, 청년실업률(15~29세)은 11.3%로 전년 동분기(7.7%)보다 3.6%p 각각 상승하였음
- (청년창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13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벤처 기업 육성 촉진지구사업 평가 결과 전국 26개 촉진지구 중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전국 최고수준의 벤처집적지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대구역 일원에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와 모바일게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어 예비 창업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창업전초기지로 변모해 가고 있는 만큼, 창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지원(벤처캐피털 등)이 절실한 곳이기도 함.

- 2013년 8월 23일 개교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에는 현재 제1기 45개 팀 약 200여명이 입주 중
- 내달에 개소 예정인 ‘대구모바일게임센터’에는 글로벌 기업인 일본의 ComSeed(연 평균 매출 500억원)와 DTCjapan(연 평균매출 200억원)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한국 지점을 신설하여 입주할 예정에 있음.

○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지원) 한국은행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운영.

그러나 이 자금은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임.

총액한도대출 중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주요 내용

- ① (지원목적)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
- ② (지원규모) 3조원
- ③ (지원대상)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아래의 중소기업
 - (공통부문)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보유기업
 -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 (추가부문) 은행이 한국은행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문(필요시 선정 예정)

□ 질의 및 제언

- (자본과 생산기반의 역외이전) 대구는 대표적 소비도시이지만, 소비가 다시 지역내 생산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 동남권 산업벨트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대표적 공업도시 구미가 대표기업들의 역외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 지역 경제를 넘어 다시 대구경북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할것임.

질의 1) 대구는 지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도시임.

그러나 지역 내에서 소비한 돈이 지역 내에 머물며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방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점이 있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공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소비 ⇨ 지역 내 연관산업 발전 ⇨ 지역경제활성화 ⇨ 소득 증대)

그 대표적인 것이 대형 마트임. 대구에 31개 점포를 가진 역외 유통업체가 2011~2012년 올린 매출은 5조7천121억원에 달하는데, 본사로 송금되고 지역의 잉여와 부가 유출되는 것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역외 이탈자금에 대한 통계를 내고 계신지?

질의 2) 차제에 자금의 역외이탈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탈 자금의 최소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신세계백화점의 광주진출은 지역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음. 대형유통점의 지역 점포가 아닌 (주)광주신세계백화점으로 법인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서 적절한 이윤을 실현하고 지역과의 밀착 경영으로 상호번영의 길을 모색한 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위 사례도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람.

질의 3) 생산기반 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함. 특히 법인세수와 지역 고용, 그리고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경제 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년 취업률 하락) 청년층 취업률 하락은 노동력 고령화를 불러 신기술 습득 등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우리 대구는 타 지역과 달리 11개 대학(7개 공학과정 보유), 14개의 전문대학이 있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인 만큼, 청년취업률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임.

질의 5) 2011년 10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다가 2013년 4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대구경북본부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질의 6) 대표적 대학 밀집지역인 대구는 청년실업 문제가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하게 와 닿는 곳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지금껏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가?

○ (창조경제의 중심지 도약) ICT산업 육성과 함께 창업 촉진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음. 최근 들어 동대구역 일원에 ICT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창업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음.

8월 23일 개교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와 내달 개소 예정인 ‘모바일게임센터’는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터전이 될 것임.

질의 7) 한국은행에서는 C2(총액한도대출)자금을 통해, 기술형 창업지원(3조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엄격해서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의 기업들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행의 창업지원자금의 일부를 예비창업자와 일정 기술력을 가진 창업 초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질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촉진지구의 활성화가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동대구벤처밸리와 서대구벤처밸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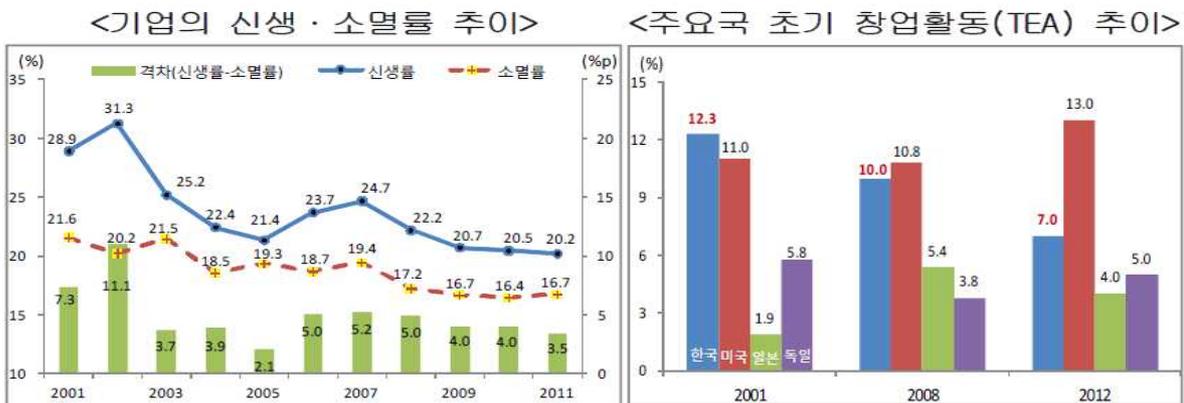
(대구지방국세청)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세심한 세정 필요해

□ 현황과 문제점

- 창업은 신규 일자리 증대와 신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 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가동사업자(사업자 신고 후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한 업체) 대비 신규 사업자를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20.2%로 하락했고, 소멸률도 동기간 21.6%에서 16.7%로 낮아짐



자료: '국세통계'를 이용 자체 계산
 주: 신생률=(각년도 신생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소멸률=(각년도 소멸기업)/(각년도 가동기업)*100

자료: GEM.
 주: 한국은 2003~07년까지 조사되지 않았음.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13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벤처 기업 육성 촉진지구사업 평가 결과 전국 26개 촉진지구 중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전국 최고수준의 벤처집적지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대구역 일원에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와 모바일게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어 예비 창업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곳인 만큼 창업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은 필수적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동대구지역(신천3·4동, 범어 1,2,3동)과 성서지역(호산동,호림동)에 위치하며 동대구 지역은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대구지식서비스센터 등 인프라 환경 개선에 따라 정보통신 등 지식서비스 기업 집적으로, 성서지역은 벤처기업의 시험·생산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 2013년 8월 23일 개교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에는 현재 제1기 45개팀 약 200여 명이 입주 중
- 내달에 개소 예정인 ‘대구모바일게임센터’에는 글로벌 기업인 일본의 ComSeed(연 평균 매출 500억원)와 DTCjapan(연 평균매출 200억원)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한국 지점을 신설하여 입주할 예정에 있음.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에 다양한 세정지원이 필요함

세법 지식 등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이라던가 창업절차와 관련된 세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견해는 ?

질의 2) 필요하다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및 ‘대구모바일게임센터’와 MOU를 통해 창업 프로그램에 창업관련 세법 강좌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제언) 예비창업자와 신규 창업벤처기업들을 위해 창업 준비에서 사업 시작까지 원스톱 세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대구지방국세청장님께서 세심히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징수유예 처분을 전국 최고, 건당 금액 전국 최저
 - 전체 징수유예 건수의 약 32.5%, 1건 당 평균 유예금액 700만원-

□ 현황과 문제점

○ 대구·경북의 실물경제 규모는 전국의 9.6% 수준이며, 지역내 총생산(GRDP)은 118.8조원(2011년), 1인당 GRDP는 4,586만원, 수출 591억 달러(2012년)로 전국의 10.8%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대구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7.5조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
- 2011년 경북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81.3조원으로 전국의 6.6%를 차지
- 대구·경북의 금융기관 수신 규모는 '13년 8월말 기준으로 147조 1,526억원이고 대구·경북의 금융기관 여신 규모는 '13년 8월말 기준으로 105조 5,384억원에 이룸
- 대구·경북 제조업의 자금사정 BSI는 2010년 93, 2011년 90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2년 84(전국평균 85), 그리고 2013년 8월말 현재 78로 전국평균 86에 못 미치는 수준

○ (대구의 주요지표) 대구의 고용률은 58.2%로 전국평균 59.4%를 밑돌고, 실업률은 3.3%로 전국평균 3.2%를 웃돌고 있으며 어음부도율 역시 0.24로 전국평균 0.12를 상회하여 젊은이들의 타시도 진출현상이 두드러져 매년 순 이동인구 (-)를 기록

전국평균 대비 대구지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명)

경제지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고용률 ¹⁾	전 국	59.5	58.6	58.7	59.1	59.4
	대 구	56.5	56.4	57.0	56.8	58.2
실업률 ²⁾	전 국	3.2	3.6	3.7	3.4	3.2
	대 구	3.6	4.3	4.0	3.7	3.3
어음부도율	전 국	0.15	0.14	0.15	0.11	0.12
	대 구	0.58	0.44	0.35	0.35	0.24
순이동인구	대 구	-12,738	-12,662	-11,840	-12,747	-10,564

자료: 통계청

○ (지방국세청간 경제규모) 유사규모의 3개청(대구/대전/광주지방국세청)과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3개 지역 모두 경제여건 및 납세인원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은 대구가 가장 하위권에 놓여 있음. 2009년 이후 대구지역의 경기는 조금씩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임.

- 과거에는 대구의 경제규모가 대전·광주에 비해 다소 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전·광주지역의 SOC 집중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으로 3개청 중 최하위

지방국세청간 경제 규모 비교

(단위 : 10억원)

연도	대구청	GRDP	대전청	GRDP	광주청	GRDP
2011	합계	118,774	합계	151,437	합계	126,498
	대구	37,453	대전	27,799	광주	26,192
	경북	81,321	충남	84,881	전남	62,321
	-		충북	38,757	전북	37,985
2010	합계	113,946	합계	139,000	합계	118,533
	대구	35,632	대전	26,413	광주	25,140
	경북	78,314	충남	76,354	전남	58,750
	-		충북	36,233	전북	34,643
2009	합계	102,020	합계	121,520	합계	104,969
	대구	32,797	대전	24,211	광주	22,066
	경북	69,223	충남	65,134	전남	51,048
	-		충북	32,175	전북	31,855
2008	합계	100,426	합계	110,467	합계	103,603
	대구	32,714	대전	23,218	광주	21,745
	경북	67,712	충남	57,147	전남	52,387
	-		충북	30,102	전북	29,471

자료 : 통계청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구·경북지역에는 201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총액한도대출금 7,750억원) 및 포항본부(973억원)가 운용하는 지방중소기업자금 8,723억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총액한도대출(4조 9,000억원) 대비 17.8% 수준임.

- 최근 3년간의 총액한도대출금 규모가 7,75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악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자금사정 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국세청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6개월분의 징수유예는 49,780건으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최고의 건수(전체 징수유예건수의 32.5%)를 기록함. 2011년 65,623건, 2012년 87,496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임.

2013년 6월 현재 지방청별 징수유예 현황

(단위:억원)

구분		서울	충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계
징수 유예	건수	19,522	16,779	24,719	18,381	49,780	24,149	153,330
	금액	6,358	4,839	4,131	2,678	3,655	4,951	26,612
	건당 평균금액	0.33	0.29	0.17	0.15	0.07	0.20	0.20

자료:국세청

□ 질의 및 제언

- (세정지원)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징수유예건수가 전체의 32.5%를 차지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반면, 건당 징수유예금액은 전체의 13.7%(7백만원)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음.

질의 1) 징수유예 건수 대비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영세 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일 것임.

문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분들을 위해 어떤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전통시장지원) 고용 흡수력이 높은 전통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종사 상인은 물론 무급종사자, 관련업계 자영업자 등의 고용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고용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판매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이 초래되고,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는 전통시장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질의 2)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견해는?

(대구지방국세청) 짧은 질의

□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처리 가장 적극적!

-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세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따라서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소통창구인 만큼 국세청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부문이기도 함.

* 고충 민원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처리 가능

- 대구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고충민원 처리 평균 일 수 가장 짧아('09년 1월 1일 ~ '13년 8월 31일)

〈고충민원 처리 평균일 수〉

연도	평균 처리 일수	연도	평균 처리 일수
서울청	9.6일	광주청	7.5일
중부청	9.4일	대구청	5.6일
대전청	7.1일	부산청	7.5일

자료:국세청

- ◆ (질의) 고충민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보충적 권리구제 성격이 강한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있음.

그간의 대구청 노고에 치하 드림.

다만, 최근 들어 대구청의 고충처리 민원이 줄고 있는데 이와 대한 대구지방청장의 견해는?

*2013년 상반기 199건으로 전년 동기 242건보다 17.8% 감소

□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수,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일 양호!

- 대구·경북 지역의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198개로 전체 체납법인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89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2.3%를 점하고 있음

*1인당 평균체납액은 18억원으로 광주 148억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명단공개법인도 급격히 증가

고액·상습 체납 법인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68	11,399	1,102	24,477	627	17,437	2,771	46,246	4,768	154,063
서울청	146	7,930	433	11,780	320	10,755	1,160	20,910	2,059	51,953
충부청	68	1,797	348	6,454	160	3,691	816	12,254	1,392	24,196
대전청	11	296	85	1,992	38	777	177	2,469	311	29,730
광주청	9	379	68	1,195	24	405	129	2,507	230	34,216
대구청	3	138	38	590	22	426	135	2,435	198	3,589
부산청	31	859	130	2,466	63	1,383	354	5,671	578	10,379

자료: 국세청

- ◆ (질의) 지난 2011년 이후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공개 법인은 198개로 가장 작게 나타났음.
 체납액이 타 지방청보다 적은 것은 대규모 법인 등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체납법인 수가 적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임.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성실납세 기업문화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매년 5월이 업무과중 최고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이 겹치는 달로써 2013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총 대상 납세 인원은 67만명임. 기존 고유 업무에 추가되는 부가업무 성격인 위 업무는 직원 1인당(총 1,669명) 납세자 401명의 민원을 해결해하는 수준임

세목별 신고 대상 인원 현황
(대구·경북, 2013.5.기준)

종합소득세 영세납세자
신고 대상 인원

합계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	근로 장려금	합 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단일소득)	
					과세대상자	과세미달자
674천명	540천명	3천명	131천명	171천명	78천명	93천명

- 5월 각종 신고가 집중됨에 따라 세무서 혼잡으로 인한 상담지연, 부실한 신고상담 등 납세자 불편 초래
 -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대부분이 세무경험이 없는 서민 근로자로서 신청 안내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 상존
- ◆ (질의) 각종 신고·신청이 집중되는 5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